

#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270pages. 2013.  
ISBN(9789264201286).

OECD는 매년 발행되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고용지표와 발전 및 전망에 관한 논의를 수록하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관련한 현상 및 전망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최근의 개혁 동향,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 해고근로자(displaced workers)에 대한 특집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2013년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 이후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국가 간, 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

책적 개입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계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대형 신흥 경제국은 경제위기에 의한 고용의 타격을 덜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사회적 보호에서 취약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으며, 저숙련 및 저소득 가구는 고숙련 고소득 가구에 비해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고용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강화를 위해 구직지원,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충분한 자원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성장 강화와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적절한 조합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장기간의 위기에서 실업 수당자격을 상실하고 덜 관대한 사회부조로 추락하는 위험을 겪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실업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국가에서는 근경에 빠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 소득 급여를 강화할 필요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고노동자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가 가급적 신속하게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것이 필수적

이지만 공공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Income Inequality :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 Janet C. Gornick and Markus Jantti.  
Stanford University Press. 540pages. 2013.  
ISBN(9780804778244)

‘불평등’은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전통적 이슈로 그동안 관련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불평등 관련 연구는 주로 ‘빈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잘 담아내고 있다. 간략하게 특징을 소개하면 주로 소득 불평등을 다루고 있고, 특히 중산층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내용의 구성은 관련 연구 17개를 ‘소득’, ‘중산층’, ‘정치’, ‘고용’, ‘부(wealth)’, ‘국가 비교 연구’의 총 6부로 구분하여 엮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있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지만 소득불평등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성별, 노동 시장, 제도,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불평등을 ‘빈곤(poverty)’에 한정하던 것에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하여 소득분포, 특히 중산층의 소득분포를 잘 다루고 있고, 이들 계층의 정체성, 최근의 소득 정체현상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LIS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추가된 일본, 아이슬란드, 인도, 남아프리카에 대해 비교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novative Financing and Delivery  
Mechanisms for Getting the  
Unemployed into Work**

■ OECD. 42pages. 2013.

이 보고서는 서비스 자금조달 방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장기 실업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재정, 단순한 수당 지급이 자아낼 수 있는 지나친 복지 의존도 등을 기존의 투입중심의 서비스 자금조달 방법input-based funding이 당면한 한계로 지적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증가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금융 및 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자금조달 방법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ing), 미소금융(microfinance), 선투자후저축(invest-to-save), 공공조달 활용, 대중금융(crowd finance), 일대일금융(peer-to-peer finance)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방법의 장, 단

접과 실제 활용 예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전달체계의 혁신으로는 기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들로의 전환과 서비스 재정의 지방분권화를 얘기한다. 또한 자금조달의 혁신은 전달체계를 혁신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자금조달방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나타난 예로 결과중심 지불방법(payment by results)과 사회영향평가채권(social impact bonds)같은 모델을 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오히려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한 실정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보고서는 간략히 잘 정리하고 있다.

**How To Achieve Growth - And Equity-Friendly Fiscal Consolidation?  
A Proposed Methodology for Instrument Choice with An Illustrative Application to OECD Countries**

■ OECD. 111pages. 2013. ISSN(1815-1973)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상당한 재정건실화fiscal consolidation(GDP 60% 수준의 공적 부채)의 필요를 갖고 있다. 어떤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어떤 세율을 올릴 지에 대한 결정은 단기적 수요와 장기적 성장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형평성과 경상계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 보고서는 단기적 경제활동과 장기적 성장, 형평성, 국제적 균형global rebalancing에 기여하면서도 서로 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건실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법을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꼼꼼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는 다른 정책 목표에는 미미한 역효과만 보이면서도 보조금subsidies, 연금pensions, 재산세property taxes와 같은 정책 수단을 조금 수정하는 것 만으로도 초과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부 OECD 국가들은 지출 삭감이나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가장 작은 분야의 기존 정책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던지 역효과가 큰 다른 재정건실화 정책에 크게 의존하던지 해야 하는 보다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효과도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세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실제적인 재정건실화 전략 구상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각 나라들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다음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며 각 나라의 재정건실화 전략을 구상하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정책구상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여타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고서도 재정균형을 이를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OECD 국가들은 특정 정책 수단을 보다 공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셋째, 재정 균형 작업과 함께 구조 개혁이 병행된다면 다른 정책 목표

들을 낮추지 않고서도 재정 건실화를 추진할 수 있다.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as at  
31 December 2009**

Office of the Chief Actuary. 139pages. 2009.  
ISBN(9781100165189)

캐나다의 공적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는 1996년에 도입되었는데, 이후 캐나다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산하 금융보험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의 보험계리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보험계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9년에 발행된 이 보고서는 25번째 판이며, 보고서의 주요한 목적은 공적연금의 납부자와 수혜자에게 현재 및 향후 예측한 Plan의 재무상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장기간의 재정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간단하게 각 장을 살펴본다면, 1장에서는 보고서의 목적 및 전망범위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고, 2장에는 계리적 가정을 사용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중위가정(Best-estimate assumption)을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장기 추계기간인 75년 동안의 자산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전망결과

를 포함하고 있다. 5장에는 23번째 CPP 보고서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6장에서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검토 및 자산할당, 확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중위가정의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장에서는 Plan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하며 마지막 8장에서는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제공한다. 부록으로는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결과 및 데이터 분석과 추계가정 및 결과를 표 및 그림을 통해 추가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추계 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및 확률 모형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캐나다 CPP 계리 보고서에서는 자산배분에 따른 기금수익률을 추계할 때 확률적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201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The Social Security Board of Trustees.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영역에서 각 소관 기관에서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영역 중 유일하게 OASDI만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다.

Social Security의 영역에 속하는 OASDI는 노령 (Old-age), 유족 (Survivors), 장애연금

(Disability Insurance)의 약자이며 해당 보험수혜자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때, OASDI는 크게 노령 및 유족연금(OAS)과 장애연금(DI)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인 OASDI의 장기재정추계는 미국의 사회보장청 내 보험계리국에서 (Office of Chief Actuary) 발간하는 OASDI Trust Fund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그 과정 및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연차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도입부, 2장은 요약 그리고 3장에는 사회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장부터가 OASDI 재정추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계리적 추계와 가정변수에 관한 설명 및 추계 방법론, 부록의 순서로 이어진다.

OASDI는 앞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공적연금인 CPP와 마찬가지로 75년간의 장기재정추계

를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기추계도 함께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75년 동안의 장기추계를 중위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위, 고위 가정 하에서 추계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추계 결과의 범위에 속할 확률을 제시하는 확률적 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확률적 추계(Stochastic Projection)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기존의 민감도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편역 | 김태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 이선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